

“지역 건설사의 지원정책 지속 필요”

대건협 전북도회, 종합건설사 실적신고 결과 발표... 전년대비 8.6%증가

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회장 정대영)는 “종합건설 회사 442개사를 대상, 2018년도 건설공사 실적을 지난 15일 까지 신고를 받은 결과 436개가 신고하고 총실적금액은 전년 대비 8.6%(2,491억원) 증가한 3조1,561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2018년 실적신고 금액 상승의 요인은 공공공사 물량부족 극복하기 위해 주택, 민간 건설 등의 전라지역 등 민간 건설 수주에 힘입어 1위를 차지했고 (주)제일건설로 꾸준한 아파트 건설 실적으로 2위, 3위는 (주)신상건설로

업체수가 436개사로 작년 대비 10개사가 증가한 것도 한 원인으로 파악됐다.

따라서, 종합건설업의 수익분기점 (토건업체 기준)인 50억원 미만의 업체 비율도 전년 66.4%에서 64.7%로 소폭 감소하여 재무 건전성이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

2018년도 도내 실적 1위는 지난해 2위를 차지했던 (주)계성건설이 공공주택(이치음 브랜드), 호텔 건설 등 민간 건설 수주에 힘입어 1위를 차지했고 (주)제일건설로 꾸준한 아파트 건설 실적으로 2위, 3위는 (주)신상건설로

경기도 등 타 지역의 주택건설 민간 공사 수주로 작년 6위에서 3단계 순위가 상승하고 (주)대창건설도 외지 지역 수주 증가로 4위로 상승했으며 (주)신일이 5위를 차지했다.

그 외에도 새롭게 50위권대로 (주)성토건(13위), (주)미래시아건설(24위), (주)이코종합건설(25위), (주)가원건설(26위), (주)승화종합건설(31위), (주)해전건설(32위), (주)상현종합건설(33위), (주)유백건설(41위), (주)에이치엘종합건설(42위), (주)지아이(43위), (주)한훈(44위), (주)은송(45위), (주)승명종합건설(47위), (주)흥성(48위), (주)지엔에스건설(50위) 등이 진입했다.

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 관계자는 “이번 실적신고 집계결과 전년대비 실적금액 증가의 가장 큰 요인은 SOC 공공공사 물량의 감소에 따라 개별 회사의 경영의 위기의 돌파구를 찾기 위한 새로운 시장 진출 등의 자구책 마련 결과이다”고 말했다.

또한, “새만금 우대기준 마련을 통해 대형 건설공사에 지역업체의 참여 비율이 높아진 것도 한 몫을 차지한다”며, “앞으로도 발주관서의 다각적이고 합리적인 지역 건설사의 육성 지원정책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영태 기자

합건설(47위), (주)흥성(48위), (주)지엔에스건설(50위) 등이 진입했다.

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 관계자는 “이번 실적신고 집계결과 전년대비 실적금액 증가의 가장 큰 요인은 SOC 공공공사 물량의 감소에 따라 개별 회사의 경영의 위기의 돌파구를 찾기 위한 새로운 시장 진출 등의 자구책 마련 결과이다”고 말했다.

또한, “새만금 우대기준 마련을 통해 대형 건설공사에 지역업체의 참여 비율이 높아진 것도 한 몫을 차지한다”며, “앞으로도 발주관서의 다각적이고 합리적인 지역 건설사의 육성 지원정책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영태 기자

“건설경기 불황 뚫고 고군분투... 올해엔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도록 최선을”

전건협 전북도회, 실적신고 접수 완료... 전년대비 6.2% 성장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회장 김태경)는 지난 15일 완료한 도내 전문건설업체들의 2018년도 기성실적신고액이 전년대비 6.2% 증가한 2조 4,511억원을 달성했다고 발표했다.

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의 건설공사 기성총액은 2017년 2조 3,084억을 기록, 2018년 전체적인 국내 건설경기 불황의 여파로 마이너스 성장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예상에도 불구하고 약 1,427억이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다.

도급 형태별로는 원도급 공사가

9.6% 증가한 7천 940억원, 하도급공사는 4.6% 증가한 1조 6,571억원으로 집계됐다.

무실적 업체가 87개, 1억미만을 신고한 업체는 3개사 줄어든 273개였고, 100억원이상의 실적을 올린 업체는 2개사가 늘어난 35개 업체로 이 업체들의 하도급금액이 전체 하도급 기성액의 43.3%(7,173억원)에 달해, 전국적인 경쟁력을 갖춘 이들 상위 업체들이 실적상승을 주도한 것으로 분석된다.

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 김태경 회장은 “반지, 열악한 여건속에서 지난 한 해 건설현장의 최일선에서 고군분투해온 회원사의 노고에 감사드리다”며, “올해는 지난해 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 SK건설, 대림건설과 체결한 ‘새만금사업 지역 전문건설업체 하도급 참여 확대를 위한 MOU’의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도내 전문건설업체의 수주물량 확대를 위해 건설지원팀과 하도급 관리팀을 신설해 준 전북도와 전주시에 2,400여 회원업체를 대신해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린다”며, “하도급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가 활동을 시작한 만큼 2019년에는 지역전문건설업 발전에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한편, 947억원을 신고한 초석건설산업(주)(대표 최규영)가 도내 업체 중 기성신고액 1위를 차지, 지난해 1위였던 (주)청강건설(대표 김문수)이 680억으로 2위, (주)신우건설(대표 안형순)이 3위(425억원), (주)유림개발(대표 최영진)이 397억으로 4위, (주)일광산업개발(대표 지은숙)이 5위(308억)를 차지했다. /김영태 기자

농협은행 전북본부 '방카클럽 발대식' 가저

농협은행 전북본부(본부장 김장근)는 최근 전북지역본부 회의실에서 관내 영업점 방카클럽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도 방카클럽 발대식을 가졌다고 18일 밝혔다.

방카클럽은 전북 도내 영업점 방카담당자로 구성되어 권역별 방카사업의 확대와 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개설됐다.

발대식과 함께 2019년도 1/4분기 방카 현장교육도 했다.

교육에는 농협은행 WM연금부 방카팀을 비롯하여 6개 보험사 담당자가 강사로 초빙되어 최근 방카슈랑스의 트렌드, 중점 추진 방향, 보험사별 대표 상품 교육 및 마케팅 스킬을 함께 공유하는 순서로 진행했다.

김장근 본부장은 “지속적인 교육과 담당자의 역량 강화를 통해 금융 전문가 육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창의적 아이디어 구현하는 '메이커스페이스 주관기관' 모집

전북중기청, 55개소 추가 조성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김광재, 이하 전북중기청)은 국민 누구나 창의적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구현할 수 있는 2019년 메이커 스페이스 운영 주관기관을 3월 4일부터 3월 20일까지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메이커 스페이스는 아이디어 구현에 필요한 3D프린터, 레이저커터 등 다양한 장비를 갖춘 창작활동공간으로, 정부는 메이커운동의 전국적인 확산을 위해 지난해 전국 65개소의 메이커 스페이스를 신규 구축했다.

도내에는 한국전통문화전당, 전북창업공유지원센터, 청년문화협동조합 놀자 등 3개 기관이 일반형으로 선정되어 지역 특색에 맞게 메이커스페이스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11월에 개소한 (사)전북창업공유지원센터는 익산의 대표산업인 농식품특화 푸드(Food) 3D 프린터, 섬

유체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그 뒤를 이어 12월에 오픈한 청년문화협동조합 놀자랩은 남원지역의 청소년 공유공간을 제공하고 청년 커뮤니티 활성화에 힘쓰고 있으며, 한국전통문화전당은 리빙콘텐츠 DIT센터를 1월에 오픈하여 디자인과 한지공예·문화예술 등 다양한 메이커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다.

이번에 추가로 구축되는 메이커 스페이스는 전국 총 55개소로 '교육과 체험' 중심의 일반형 공간 52개소와 전문창작과 창업연계 기능의 전문형 공간 3개소이다.

일반형 메이커 스페이스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메이커 입문교육과 창작활동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전문형은 시제품 제작 등 전문적인 창작활동과 창업 인프라를 연계한 창업·사업화 지원 및 지역 메이커운동 확산을 위한 거점 기능을 수행한다.

올해는 메이커 활동에 대한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 주민에 대한 서비스 확대를 위해 비수요권을 중심으로 메이커 스페이스를 조성할 예정이며, 특히, 학교 밖 청소년 등 사회취약계층과 나후 지역 등 메이커 활동 소외자 대상의 스페이스를 5개소 내외로 조성하여 메이커 활동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계획이다.

신청자격은 메이커운동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교육·창작활동 지원 등 전문 역량과 인프라를 보유한 공공·민간기관 및 단체이며, 기존 관련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들도 프로그램 확충 등 개선이 필요한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평가를 거쳐 선정된 기관에게는 총사업비의 70%(일반형의 경우 80%) 이내에서 공간 인테리어, 장비 구축 및 프로그램 운영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전문형은 30억원, 일반형은 2.5억원 내외로 지원한다. /김영태 기자

전북은행 JB 통합콜센터 시스템 구축 오픈식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이 'JB 통합콜센터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하여 성공적으로 오픈했다.

“한층 업그레이드된 상담서비스 느껴보세요”

전북은행, 'JB 통합콜센터 시스템' 오픈식 가저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임용택)은 'JB 통합콜센터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하여 성공적으로 오픈했다고 18일 밝혔다.

'JB 통합콜센터 시스템'은 작년 7월부터 약 8개월간의 개발기간을 거쳐 구축됐으며, 디지털 금융환경 변화의 트렌드에 발맞춰 콜센터 인프라의 고도화, 실시간 음성인식시스템(STT) 등 신규 솔루션 도입과 상담사용 지식 관리시스템(KMS) 구축 등 상담시간의 단축과 보다 체계적인 통합 콜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진행됐다.

이와 함께 텔레뱅킹 서비스 중 고객이 주로 사용하는 업무 코드를 기존 3자리에서 1자리로 바꾸는 등 사용자 편의성에 맞춰 ARS를 개선, 우수고객, 어르신 고객의 경우 여러 단계의 ARS 버튼 없이 손쉽게 상담사를 연결할 수 있도록 했고 느린말 서비스도 추가했다. /김영태 기자

또한, 오픈기간에 맞추어 텔레뱅킹을 이용한 이체 수수료를 면제하는 행사도 함께 진행 중이다.

새롭게 구축된 시스템 중 전화를 걸지 않고도 상담이 가능한 채팅상담 업무가 추가됐고 전북은행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뱅킹에서 채팅상담을 통해 고객들이 궁금해 하는 내용 등을 채팅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향후 채팅상담 채널을 늘려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전북은행 김종원 수석부행장은 “콜서비스의 KS인증(한국표준협회)과 더불어 '통합콜센터 시스템' 구축을 통해 고객센터의 상담서비스가 한층 업그레이드 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전북은행은 고객에게 더 많은 혜택을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누구에게나 따뜻한 금융을 실현해 나가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농협은행, 골드바 구매고객 이벤트 실시... 투자 정보도 제공

NH농협은행 전북본부(본부장 김장근)는 도내 전 영업점에서 전북도 성인이면 누구나 골드바(Gold Bar)를 손쉽게 안전하게 구매할 수 있는 '골드바 서비스'와 구매고객 대상 이벤트를 6월 29일까지 한다고 18일 밝혔다.

골드바 서비스는 순도 99.99%의 금을 (주)한국금거래소 쓰리엠과 (주)삼성금거래소를 통해 농협은행이 판매, 판매종류는 10g, 100g, 1kg, 10돈(37.5g), 50돈(187.5g), 100돈(375g)으로 총 6종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골드바를 구매하는 모든 고객

을 대상으로 판매업체 협찬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주)한국금거래소 쓰리엠에서는 골드바 1kg 구입 시 1g의 금수저를 제공하며 (주)삼성금거래소에서는 375g 골드바 구입 시 100g의 실버바를 제공한다.

한편, 골드바 구입은 영업점 뿐만 아니라 인터넷뱅킹, 올원뱅크를 통해서도 구입이 가능하며 실시간 변동되는 골드바 가격조회 서비스와 금 시세 추이, 금 투자 포인트 등을 안내하는 골드바 투자 정보도 제공하고 있다. /김영태 기자

취득세 0원

보험료 0원

자동차세 0원

초기비용 0원

“자동차 이전 소유에서 사용으로”

신차 장기렌터카.오토리스 전문업체

“월사용료는 전국 최저 가격”



대표 이영근



국산차.수입차 전차종 신차 장기렌트.오토리스

대표전화 : 1600 - 2542

스페셜오토리스.렌터카

전국 어디든 상담가능!!

지사 개설 문의